광주극장 내달 다채로운 '개봉작 행사'

'어디로 가고…' 내달 4일 시사회 김희정 감독·배우 박하선 무대인사

부동산 광풍 등 다룬 '드림팰리스' 내달 1일 GV… 가성문 감독 참석

새만금 마지막 갯벌 기록한 '수라' 내달 8일 영화 제작과정 등 이야기

광주극장이 7월 다양한 영화들로 관객을 맞이한다. 배우들의 무대인사, 감독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소통의 시간도 갖는다.

먼저 김희정 감독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가 오는 7월4일 화요일 오후 7시30분 광주극장에서 시사회를 갖는다. 시사회에는 김희정 감독과 주연배우 박하선, 전석호, 김남희 배우가 참석해 관객들에게 무대인사를 올린다.

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는 광주의 독립영화인들이 스텝과 배우로 참여해 완성된 영화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영상위원회의 제작지원을 받았다.

영화 '프랑스여자'를 통해 평단과 관객을 모두 매료시킨 한국 예술 영화의 대표주자 김희정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메가폰을 잡았으며 국내 장면은 모두 광주에서 촬영됐다. 특히 올해 열렸던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처음 상영돼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

작품은 광주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배경으로, 갑작스레 남편 '도경'을 잃은 '명지'와 사고로 동생 '지용'을 잃은 '지은', 단짝 친구와 이별한 '해수'가 서로의 상실을 이해하고 치유받는 위로의 과정을 담고 있다. 중학교 교사인 도경은 자신의 반 학생 지용이 물에 빠지자 그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목숨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세상에 외로이 남겨진 도경의 아내 명지와 지용의 누나 지은은 그들에게 닥친 비극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명지는 현실을 피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떠나고 그곳에서 유학 중인 대학 동창 현석을 만나지만 도경과의 추억을 끄집어내는 그에게 선뜻 사실을 전하지 못한다. 영화는 역대 최연소 이상문학상 수상자인 김애란 작가의 소설집 '바깥은 여름'에 수록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아파트 미분양, 부동산 사태 등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현실 이슈를 설득력 있게 담아낸 '드림팰리스 GV(감독과의 대화·Guest Visit)'가 가 7월1일 오후 3시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GV는 임인자 독립서점 '소년의 서' 대표가 진행하며 영화를 연출한 가성문 감독이 참석해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드림팰리스'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된 이후, 묵직한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각본뿐만 아니라 흡입력 높은 연출력까지 주목받으며 걸출한 신예 감독의 데뷔를 알린 작품이다.

7월5일 개봉하는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는 현대 영화 음악의 거성,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인생을 담은 작품이다. △시네마 천국 △피아니스트의 전설 △미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등 명작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며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그래미를 석권한 우리 시대 최고의 영화음악가였던 엔니오 모리꼬네. 영화는 그의 초창기 트럼펫 연주자 시절부터 거장 감독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소개한다. 특히 한스 짐머 음악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왕가위 감독, 메탈리카의 리드 보컬 제임스 헷필드, 퀸시 존스 등 내로라하는 아티스트들의 인터뷰까지 관객들을 음악여행으로 안내한다.

7월7일 개봉 예정인 '보 이즈 어프레이드'는 △유전 △미드소마까지 만드는 작품마다 대표작이 돼 현대 호러 마스터로 추앙 받는 아리 에스터 감독의 신작이다. 영화는 엄마를 만나러 가야 하는 '보'의 기이한 여정을 그리고 있다. 연기파 배우 호아킨 피닉스가 불안과 편집증에 시달리면서 엄마에게 순종적인 아들 '보' 역할를 맡아 '조커'를 넘어설 역대급 캐릭터 연기를 선보인다.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 '수라'의 시간을 7년동안 기록한 황윤 감독의 영화 '수라'. 갯벌의 아름다움을 수려한 이미지와 사운드로 구현한 웰메이드 다큐멘터리 '수라'의 GV가 7월8일 오후 1시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GV는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진행하며 황윤 감독이 참석해 영화를 만들기까지의 과정과 군산 신공항 건설로 위협을 받고 있는 수라 갯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다큐 영화 '수라'는 개봉 6일 만인 지난 26일 누적관객수 2만명을 돌파하며 '아주 희귀한 보석같은 영화', '영화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작품' 등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광주극장에서는 선천적 청각 장애를 가진 프로 복서 케이코가 혼란과 고민 속에서도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담은 영화로 2022년 제96회 키네마 준보 시상식에서 일본 영화 대상을 받은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과 각박한 LA 도심을 떠나 버려진 황무지를 자연과 공존하는 기적의 농장으로 일구어낸 체스터 부부의 8년간의 경이로운 체험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위대한 작은 농장'을 절찬 상영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내달 1일 로컬 플리마켓 '니어·디어' 문 열어요

ACC재단 복합문화시설 기념 소상공인 판로개척 등에 기여 중고마켓·먹거리 등 부스 마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내 복합문화·편의시설 정식 운영을 기념해 7월1일 지역민과 함께하는 로컬 플리마켓인 '니어(Near)·디어(Dear) 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ACC재단과 ACC 복합문화시설 '파크먼트 광주' 운영사인 ㈜어반플레이가 공동 주최하고 YMC, 모랍플랫폼이 공동 주관한다. '니어·디어 마켓'은 ACC내 복합문화·편의시설의 본격 운영을 알리는 한편 지역 문화 창작자들을 소개하는 장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판로 개척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켓에는 지역 문화 창작자들의 상품 판매존과 함께 체험존, 시민참여형 중고마켓, 먹거리존 등 약 80여개 부스가 마련돼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ACC재단은 기존 '카페 크라운'에 이어 지난 4월 편의점을 개점했다. 이어 팝업 아트공간인 '뉴스 뮤지엄(N: NEWS)', 밀크티 유행의 진원지인 '카페, 진정성', 지역의 전통 식료품 및 아트상품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캐비넷클럽 라운지' 등을 잇따라 열고 ACC 방문객들에게 보다 폭넓은 문화경험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니어디어 마켓은 7월1일 오후 3시부터 ACC 아시아문화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복합문화·편의시설이 7월부터 본격 운영돼 관람객들의 문화적 경험과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며 "방문객 뿐만 아니라 지역 창작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마련하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202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도슨트 모집

내달 10일까지 접수… 8명 선발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은 오는 9월7일 개막하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전시 작품 해설사로 활동할 도슨트를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도슨트는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을 주제로 오는 9월7일부터 11월7일까지 열리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관람객들의 전시 이해를 위해 전문적인 전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서 접수 마감은 7월10일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8월 중 기초교육, 심화교육, 현장학습을 거쳐 9월7일부터 11월7일까지 관람객들에게 전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 외국인(한국어 구사)으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 기간 동안 도슨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비엔날레, 미술관 등 도슨트 경험자,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능력 가능자(전시해설이 가능한 수준)는 우대한다.

이번 도슨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홈페이지(www.gdb.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7월10일까지 이메일(kyr0417@gdc.or.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문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사무국(062-611-5044)으로 하면 된다.

한편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2023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9월7일 개막해 11월7일까지 2개월간 광주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광주 시내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린다.

도선인 기자

로더 앙상블이 오는 7월3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스트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월요콘서트 올해 마지막 무대에 선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로더 앙상블 '내 인생의 최고의 음악가'

월요콘서트 올해 마지막 공연 내달 3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7월3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월요콘서트 올해 마지막 무대에 로더 앙상블 '내 인생의 최고의 음악가'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창단한 로더 앙상블(대표 김세련)은 플루트, 첼로, 피아노를 중심으로 다양한 구성의 악기로 이루어진 앙상블 단체다. 프랑스어인 로더(L'odeur)는 향기라는 뜻으로 각자 연주자들이 하나의 음악적 향기를 내는 연주를 하자는 취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날 공연은 플루트, 첼로, 피아노 트리오로 구성했으며 △C. Debussy 'Trio for flute, cello and piano in G major'(C. 드뷔시의 피리,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G장조) △P. Gaubert 'Piece romantique for flute, cello and piano'(P. 고베르의 플루트, 첼로, 피아노를 위한 작품 낭만주의) △F. Kuhlau 'Grand Trio for flute, cello and piano op. 119'(F. 쿨라우의 플루트, 첼로, 피아노를 위한 그랜드 트리오 op.119)를 연주하고 해설을 통해 당대 음악가들의 소중한 인연과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 등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연주는 플루티스트 김세련(인천예술고등학교, 쾰른국립음대 출강), 첼리스트 권현진(대전예술고등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출강), 피아니스트 조사무엘(광주예술중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 출강)이 출연한다.

월요콘서트는 8세 이상 관람가에 전석 5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빛고을시민문화팀(062-670-7942)으로 문의.

도선인 기자